

에스더 1 장

1. 구스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은 캄비세스(BC 529-523)고, 인도(정확하게 말하면 인더스 강 서쪽 지역)를 정복한 왕은 다리오(BC 522-485)다.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BC 485-464)는 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대적들이 이 왕에게 고소를 했던 적이 있다(스 4:6, 에스라 4장의 6번 참고) 그러니까 이 일은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돌아오고 남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127도를 가진 거대한 제국을 거느리긴 했지만 헬라 지역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는 방탕한 생활을 지속한 것 같다. 단 9:1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다리오의 아버지로서 다른 왕이다.

2. 아하수에로가 어느 나라 왕이기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들이 왕 앞에 있는가?

바사: 메대와 바사는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메대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조그마한 바사와 손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를 접수해 버린다. 고레스는 메대의 군사력으로 바벨론을 함락시켰다. 결국 바사는 두 민족의 연합체인 셈이다.

3. 무슨 잔치를 이렇게 오랜 동안 벌였을까?

나라의 부합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는 의도겠지만(4) 127도나 되는 나라의 방백들을 한꺼번에 6개월씩이나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교대로 불러들이느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바사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소개하는 셈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에 유대 민족을 말살할 수도 있고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었다.

4. 180일간의 잔치(3-4)와 7일간 잔치(5)는 어떻게 다를까?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방백과 신복들을 상대로 한 것이니 정책을 논하기도 했겠지만 후자는 대소 인민을 위한 것이니 그야말로 유흥이었을 것이다.

5. '마시는 규모(8)가 뭐야? 아마도 왕이 특별하게 명을 내린 모양이다. 무엇이라고?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하라(8):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강제하지 말라는 특명까지 내렸던 모양이다. 평소에 술 마시는 엄격한 법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의 애주가들도 까다로운 법도(한 잔만 주면 정이 없다, 잔은 비워야..., 비웠으면 권해야...)를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6.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마다 예법도 다르니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9-11절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보자.

왕의 잔치에 왕후가 함께 하지 않고 따로 잔치를 여는 것, 왕후를 부르는데 내시를 7명이나 보낸 것, 왕후가 거절한 것: 7명이 왕명을 전한 것은 정중한 예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왕후가 거절한 것은 술 취한 왕과 백성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한 것 아닐까? 억지로 그렇게 짐작할 뿐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인다. 거부당한 왕이 진노하는 것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7. 술에 취해서 자신이 무시당한 것을 술이 깬 다음에 알았으면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허세가 심할수록 어려운 일이다: 어리석은 왕일수록 더욱 그렇다. 더구나 아첨하는 무리가 곁에 있으면 더욱 그렇다. 번덕스러운 인간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대형사고를 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힘이 있음에도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을 책할 줄 안다면 성인군자다. 그러려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 어쨌거나 아하수에로의 허세, 참모들의 아첨으로 일은 벌어지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8. 왕이 박사들에게 물은 말은 15절이다. '나의 명'이라고 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명'이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주관적인 일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로 여기려고 하는 것: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이다.

9. 이런 질문에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큰 일이 날 수 있다. 용감하게도 무무간이 겁도 없이 긴 발언을 했다(16-20). 7명이 의논하고 무무간이 대표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요점은?

폐위해야 한다(19): 갑자기 남자대 여자의 싸움이 되고 말았다(18, 20).

10. 이런 왕의 명령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이 박사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 왕의 마음은 변하더라도(2:1) 왕후가 다시 복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

법률로 반포하면 된다: 한번 공포된 바사와 메대의 법률은 왕도 고칠 수 없었다(8:8, 단 6:8 단 2:10-12: 법 위에 군림하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다).

11. 박사들의 권의에 따라 내려진 조서의 내용이 엉뚱하지 않은가?

조서에는 왕후를 폐위한다는 내용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첨부된 내용만 옮겼을 것이다.

12. 왕후의 불복으로 결국은 남자들만 좋아했네?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는 것과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는 것이 무슨 상관인 있는가?

부부 사이에 서로 방언이 다를 때는 남편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바사가 다민족 국가였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

13. 에스더 1장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에스더 전체를 뒤져도 없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탁월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분과 대조적이다. 종교적인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더 2 장

1. 분노가 치밀 때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웃음이 사라진 심각한 회의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유로운 의사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며, 노가 그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가 사그라진 후에 아하수어로 왕은 자신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메데 바사의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빨리 더 나은 왕후를 구하라는 말에 동의하고 말했다.

2. 왕이 폐위시켜버린 왕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했던 신복들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처녀를 구하라고 할 때 왕의 마음에 들도록 권해야 한다. 무슨 아첨을 또 하는가?

전국 각 도에 관리를 임명해서...: 이것도 아부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아도 왕비는 사대부 가문이나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골랐지 전국적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법이 아니다. 더구나 온갖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 바사에서? 그러다보니 번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처녀가 왕비가 된 것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재겠지만, 메데 바사의 주류 계급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하만이 당하는 것 아닌가!

3.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요즈음 말로 하면?

화장품.

4. 베냐민 자손을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가(5)?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엄연히 다른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는 12지파의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으나 다수인 유다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대체되었다.

5.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삼상 9:1), 시므이는 다윗을 욕하던 사람인데(삼하 16:5)?

전혀 상관없다. 시기상으로 500년 이상이나 차이가 있으니 전혀 다른 사람이다.

6. 여고냐가 사로잡힐 때면 언제인가?

여고냐는 여호야킨이다(렘 24:1, 왕하 24:12, 15). 그러면 바벨론의 2차 침입 때의 일인데(BC 597). 아하수어로가 조서를 내린 것은 BC 480년경이다. 모르드개가 2차 침입 때 사로잡혔다면 나이가 너무 많다. 원문을 보면 6절에 ‘모르드개’라는 말이 없고 관계대명사가 있다. 아마도 모르드개가 아니라 그의 조상 기스일 것이다. 우리말의 어법상으로는 기스가 앞에 있지만 원문상으로 제일 뒤에 있기 때문이다. 원문과 순서가 같은 NIV를 보면 *Now there was in the citadel of Susa a Jew of the tribe of Benjamin, named Mordecai son of Jair, the son of Shimei, the son of Kish,* 인데 그 다음에 개역성경이 ‘모르드개로 번역한 ‘관계대명사가 온다.

7. 모르드개는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이다(10)?

모르드개는 유대인의 긍지를 지닌 사람이었다(3:4). 다만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시켰을 뿐이다. 자신들이 긍지를 지닌 것과 달리 다른 족속들은 유대인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해개가 유대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비슷한 예로,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크게 써 붙이면 광고 효과는 있겠지만 욕을 듣기도 쉽다. 운전을 아무리 잘 해도 욕을 듣기 쉽기 때문이다. 사사건건 욕하는 사람들에게 시뵈거리를 가급적 제공하지 않는 것도 지혜 아닐까?

8. 어떻게 보면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는 것 외에도 무슨 예를 들 수 있는가?

이방인과 결혼하려는 것(8 스 9:2-3, 느 10:29-30, 신 7:3-4), 궁정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것(18 단 1:8) 에스더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후보에서 떨어지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다.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에스라, 느헤미야와 비교하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유연한 편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위대한 구원역사에서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현실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도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장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다니엘의 신앙도 위대하다, 에스더의 신앙도 위대하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신앙도 위대하고, 주일마다 경기를 치르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위대하다!

9.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일 년씩이나 해야 했을까?

성교육을 포함한 몸단장 뿐 아니라 왕후가 지녀야 할 궁중예법까지 교육하지 않았을까? 아무 것도 모르는 처녀를 왕에게 들여보냈다가 일이 잘못되면 큰 일이 날 테니...

10. 해개가 관장하던 처녀들이 왕에게 갔다가 오면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14). 왜 다른 내시가 관장하는 다른 곳(후궁 둘째 후궁)에 거하게 될까?

왕과 하룻밤을 자도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아스가스는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였다. 다시 불림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했을 테니 아까운 처녀들을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것 아냐? 인간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면 생기는 부작용이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비슷한 부작용을 경고했다(삼상 8:10-18).

11.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정해진 물품 외에도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13). 에스더는 추가로 물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15). 이게 무슨 물건이었을까?

치장, 혹은 장식용품: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닌데 끈이 크고 예쁜 가방을 고집하는 학생들이 많다. 잘 꾸미고 잘 입는 것보다 더 매력 있는 것은 인품, 성품, 신앙, 겸손한 모습인데 왕이 하룻밤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외모와 그에 걸맞은 분위기? 화려하게 치장한 것보다는 오히려 수수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었을까?

12.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 것이 왕후가 폐위된 지 몇 년 뒤인가?

4년(16): 그렇게 오랫동안 왕후의 자리를 비워놓았던 말인가?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이스 정복에 나섰으므로 왕후 문제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하고 돌아와서야 왕후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거대한 원정과 원정의 실패는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구원역사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지나갈 뿐이다.

13.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에스더가 뽑혔을까?

왕의 마음이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옛장수 맘대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에스더가 호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15).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은사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미스코리아에 나가는 것도 닦할 일이 아니네!

14. 모르드개가 왜 대궐 문에 앉았지(19)? 그러다가 반역을 알아차렸다는 점(21-22)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대궐 문은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며 다스리던 장소다. 모르드개가 정부의 상당한 고위 관리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역을 눈치 챌 수가 없다. 또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11). 후궁 뜰 앞이라면 궁궐 내부일 가능성이 크고 일반인이 함부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5. 두 문지기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신고를 했음에도 왜 기록만 하고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걸까?

왕이나 주변 참모들의 명백한 실수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16. 소설의 기법에 '복선'이란 것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듯한 일이 나중에 보면 아무 엄청난 일과 관련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모반에 대한 일을 궁중 일기에 기록한 것: 훗날 왕이 이 일기를 읽다가 위협에 빠진 모르드개를 오히려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된다.

17. 왕과 신하들의 오만과 오판(1)이 발단이 되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었다. 상줄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은 왕의 또 다른 실수(23)는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

모르드개의 화려한 등장(6:10).

에스더 3 장

1. 하만이 등장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말이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다. 아각이라는 인물을 어디서 봤더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출 17:14-16 신 25:18)고 하신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다(삼상 15:33).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 그것도 왕족이다(모르드개도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의 혈통 아닐까? 그렇다면 선조들이 다 하지 못한 책임을 후손이 하는 셈이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그 때 진멸하지 않았으니 이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인가? 그러니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철천지원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르드개의 일을 보고 받은 하만이 갑자기 유대인을 전부 멸하려고 하는 것(6) 아니겠는가. 고대에 이런 식으로 한 민족을 말살시켜버린 예가 더러 있단다.

2. 왕의 명령인데도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선 유대인이라고 밝힌다? 언제는 유대인인 것을 감추더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과 자신이 유대인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화를 자초하는 걸까?

좋어 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고백이다. 유대인이라고 위의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하만이 마치 신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를 자초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마 5:10)이다.

3.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는 것을 하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모르드개의 동료들이 고자질해서(4): 함께 근무하던 왕의 신복들이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일러바쳤다. 고약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특히나 유대인들이라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도 욕을 먹는다. 특출하게 뛰어난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4.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뭘까?

소위 길일을 택하는 것이다: 좋은 날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게 거의 11달 뒤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뒤집을 시간이 충분한 셈이다. 제비 잘 뽑았다! 에스더가 왕후에 뽑힌 것, 날도 좋은 날이 뽑힌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5. 모르드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의 법이 왕의 법률과 달라서 멸족을 시켜야겠단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 찢리는 것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와서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총리가 있었고, 고레스나 다리오가 귀환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기도 했던 민족이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왕이 다른 생각을 할까 싶어서 유대인들이라는 말을 빼버렸다. 일종의 속임수다.

6. 왕에게 건의를 하면서 은을 바친다? 뇌물인가?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경비가 필요한가?

아마도 국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은 340톤이다. 개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바치겠다는 뜻일 게다.

7. 하만의 말(8)을 뒤집어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유대인들의 신앙: 흠어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눈에도 보였다.

8. 반지를 빼주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전권을 맡긴다: 정말 경솔한 왕이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일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맡겨버리다니... 왕후를 폐위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신중하지 못한 자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어린 아이가 폭탄을 가지고 노는 격이다.

9. 그 은도 주고 그 백성도 주면서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니(11)? 아하수어로 왕이 이렇게 인심이 후한 왕이던가?

게으른 왕: 내용을 알고 말기면 인심이 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도 모른 채 맡겨버리는 것은 게으른 탓이다. 그래 놓고 일이 잘못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할 걸! 여기서 '은도 주고'는 유대인들의 재산 처분권도 맡긴다는 뜻이다. 하만이 바치겠다는 일만 달란트를 사양하는 것이 아니다(4:7 참고). 멸족당한 집안의 재산은 당연히 왕의 소유가 되는 건데 네게 맡길 테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만의 것이 될까?

10. 대략적인 바사의 행정체계는 어떠한가?

왕 - 대신 - 방백 - 관원: 전국을 20 개의 행정으로 나누고 그 밑에 127도가 있었다. 도를 관할하는 방백 밑에 각 민족을 관할하는 관원들(이들은 피정복민들의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것)이 있었다.

11. 명령은 정월 십삼일, 시행은 십이월 십삼일, 그러면 시한이 11개월 남았다.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명령은 신속하게 시행은 아주 천천히!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주자는 얘인가?

하만의 입장에서는 제비가 그렇게 뽑혔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12. 조서와 초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서에는 왕의 반지로 친 인이 있고, 초본은 베껴 것이므로 왕의 인이 없다: 원본과 사본의 차이다.

13.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르고 희희낙락하는 왕과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불합리함을 본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불합리함은 여전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너머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개선하려는 노력마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 때에 우리가 태어났음을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노력해야 한다.

에스더 4 장

1.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힐 때는 각오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막상 일이 터지자 이렇게 당황해 하는 것(1)은 이상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각오를 했을 테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개인적인 희생은 견딜 수 있으나 가족이나, 친지들, 나아가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만이 그렇게도 나쁜 놈인 줄은 몰랐다.

2. 모르드개가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곳은 자신이 근무하던 대궐 문이었을 것이다. 거기서는 상을 당한 사람처럼 대성통곡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궐 밖으로(=성중에 나가서: 1, 6) 나갔다. 실컷 울었다(1)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린 셈이다. 그렇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일단은 에스더와 연락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더와 연락이 가능한 대궐 문으로 갔을 것이다(2) 성중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굶은 베(일종의 상복)를 입었기 때문이다(2).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야 한다.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가 있기는 있다(출 14:14)

3. 왕의 조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음하며 부르짖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이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러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 길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4.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려는 모르드개의 시도는 성공한 셈이다(4). 그런데 왜 굶은 베옷을 벗지 않으려는가? 그것 때문에 대궐 출입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옷을 벗고 왕후를 만나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겠지만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이 오기까지는 벗을 수 없는 일이다.

5.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개도 그리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예전에 모반을 미리 알아채고 막은 적도 있다. 여기서도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모르드개는 조서가 반포된 경위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 왕의 의도가 아니라 하만의 흥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7). 하만이 왕에게 은밀하게 바치기로 한 은 일만의 수효까지 알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정보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만나기 어려운 왕후에게서 사자가 오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알고 있었다.

6.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인다고? 왕과 왕후는 부부다. 무슨 부부가 만나는 게 이 모양인가? 왜 이따위 법을 만들었을까?

왕의 권위 문제도 있지만 암살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왕이란 자리가 그런 모양이다. 암살을 피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쓰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은 암살되고 만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설마 왕후를 죽게 놔둘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벌써 5년이다(2:16, 3:7). 왕의 사랑도 많이 식은 모양이다(4:11). 에스더 본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7. 아무리 왕의 사랑이 식었다고 해도 설마 전혀 만날 일이 없을까? 앞으로 11달이나 남았는데 좀 기다리면 왕을 만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여야(13-14) 했을까?

자연스럽게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회다 싶을 때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더라. 어느 쪽이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모르드개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성품이었던 모양이다. 하긴 유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8.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다만 누구를,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까?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이다.

9. 좋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저런 청탁을 많이 받게 된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들어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모르드개의 청탁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말은 일반적인 청탁과 어떻게 다른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10. 이때쯤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 등장할 만도 한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다. 정상적이라면 어디서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야 할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야 할 텐데: 저자의 의도가 담긴 것

같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느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표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11.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가장 잘 인용했던 한국 사람은 누구인가?

안이숙: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곡의 작사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가? 박관중 장로와 함께 일본 국회에 항의문을 투척한 일과 신사참배반대 운동으로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일제시대의 고난을 이겨낸 자전적 소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었고 후편으로 '죽으면 살리라'를 펴냈다. 이 표현의 원조는 에스더가 틀림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다. 창 43:14 절의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말 때문이다.

12. 에스더의 단호한 결의가 보인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런 행위로 인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행위는 무엇인가?

모든 유대인이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에스더 5 장

1. 왕이 기분이 좋은 때를 잘 엿탐해서 나타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하나님만 믿고 사흘 만에 그냥 들이미는 것이 좋을까?

가뜩이나 생각도 모자라고 즉흥적인 왕이니 어전의 분위기를 잘 살펴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 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적절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런 노력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눅 14:28-32). 구체적으로 이런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야 한다.

2. 모처럼 나타난 왕후에게 대뜸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꼭 소원이 있어야 나타나는가?

왕후라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법이니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3.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3) 정말 달라면 어떡하려고?

이런 표현은 부탁을 꼭 들어주겠다는 상투적인 말이다.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떤 왕도 자기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는 법은 없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달라고 했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난다. 그래서 국어공부가 중요하다.

4. 왕이 생각하기에 '왕후가 소원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틀림없는데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영뚱하게 잔치에 초대하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증이 더 커진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애를 좀 달구면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시키고(5) 잔치 자리에서도 먼저 소청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6).

5. 온 유대 백성이 죽을 지경인데 무슨 잔치를 여는가(4, 8) 쇠뿔도 단 김에 빼라고 했는데?

아무리 다급한 소원이 있더라도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은 다음에 적절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만이 반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6. 하만은 왜 즐거울까?

왕후가 왕과 함께 하는 잔치에 자신만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즐거움과 그로 말미암은 교만이 결국은 자신을 합정으로 몰아넣는 것도 모르고!

7. 하만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많을까(9-10)?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참는 것이다: 모르드개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다가 왕이 알게 되면 유대인을 제거하려는 하만의 흥계가 모르드개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져 일을 그르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놈인데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는 이 놈만 눈에 뜨인다. 그래 조금만 참자.

8. 엄청난 재물, 많은 자녀, 총리라는 권세, 왕후의 총애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드개에 대한 미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보는 즐거움보다 모르드개를 보는 분노가 더 크게 와 닿는다(13). 모르드개만 보면 기분이 나쁘다. 자신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정말 별 것 아닌데 이렇게 분노해야 하는가? 인생이 그런 모양이다.

9. 본인은 잘 참고 있는데 부인과 친구들이 아첨하면서 분풀이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십규빗이면 23m인데 왜 이렇게 높은 장대를 준비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왕에게 모반했던 자들이 나무에 달렸지만(2:23)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으로 모르드개를 이렇게 달겠다고 하면 왕이 기분 나빠할 것을 전혀 예상 못하는 모양이다. 오만, 분노에다 주변 사람들의 아첨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에스더 6 장

1.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작정하던 이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잠이 안 온다고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은 건 또 뭐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잔치에서 한 잔하고 낮잠을 잤거나... 등등: 이유는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드개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부터 예정된 일이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

2. 절묘한 타이밍이다. 어떤 일들이 때를 맞춰 일어났는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모르드개의 공로를 알게 된 것, 하만이 때맞춰 들어온 것: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부터 예상되던 일의 일부일 뿐이다.

3.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하고 관작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모르드개에게 장난을 친 걸까?

다른 신하들이 시샘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유대인이라고 알고보고 버려둔 것 아닐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당장에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별로 상관없다.

4. 하만의 열심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를 정리해 보자.

상처 입은 자만심에 대한 분노를 해결코자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 죽이되(동기) 일찍 그 일을 처리하고 왕후의 잔치에 가려고 새벽부터 왕에게 갔었다. 왕의 의도를 곡해하는 바람에 열심히 방법을 일러드렸으나(과정) 자신으로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수치를 당했다.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모르드개에게 오히려 중노릇이나 했으니(결과) 그게 악인의 열심이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봐야 독사 새끼를 품는 짓이다.

5. 하만의 요청(8)에 왕이 빠뜨린 것이 있는가(10, 11)?

왕관: 사실은 없다(9절에는 왕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원문상 8절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이 꾸미는 말은 그 앞의 '말'이다. 그러니까 말의 머리에 왕이 타는 말이라고 표시하는 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무려면 왕관까지 달라고 하겠는가?

6. 하만의 잔피 때문에 모르드개가 손해 본 것이 있을까?

하만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높은 관작이 빠졌다: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높은 자리가 없으니 과시성 행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모르드개는 다시 자신의 직책에 따라 대궐 문으로 돌아갔다. 왕이 물었던 존귀와 관작 중에서(3) 존귀만 얻은 셈이다.

7. 유다 족속이 비록 포로로 가서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특이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독특한 삶과 신앙이 비록 멸시의 대상이었을지라도 일이 터지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도 똑똑한 참모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13):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하는 말이 올 것이다.

8. 참모들이란 것들이 하는 말이 끔찍하기만 하다. 도움이 되는 말은 하지 않고? 하만의 또 다른 불행은 무엇인가?

슬퍼할 겨를도 없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웃음을 띠어야 한다.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에스더 7 장

1. 하만은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두 번이나 잔치에 초대해준 왕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왕은 모르드개의 일로, 왕후의 잔치로, 기분이 좋다. 즐거운 마음으로 왕후의 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왕후의 어느 말에 충격을 받았을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3): 감히 왕후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있다? 나를 해하려는 자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2. 에스더의 말 중에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4).

3.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가?

우리 민족이 다 노비로 팔리더라도 결국은 왕에게 크나큰 손해가 되는 일이다(4c: 원어가 매우 애매한 말이라서 번역이 다를 수 있음.) 하물며 다 죽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다.

4.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인데?

하만이 꾸민 일이긴 하지만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일이다.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높은 사람들이 많다. 하긴 다윗도 그랬으니(삼하 12:5) 출세하는 수밖에 없나?

5. 에스더의 작전이 주효한 셈이다. 작전의 요점이 무엇인가?

두 번이나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고 해서 왕이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을 해하려는 자가 있음을 알리므로 왕을 분노케 한다. 왕이 분노하는 순간에 방심하고 있던 하만에게 느닷없이 직격탄을 퍼부어버림으로 하만이 변명할 여지를 없애 버렸다.

6. 왕이 왜 왕궁 후원으로 갔을까?

열을 식히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느라고? 아마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데 내시 하르보나가 옆에서 거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시던(출 17:16)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만과 모르드개 혹은 에스더와의 권력투쟁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7. 왕이 노하여 자리를 뜬 사이에 하만이 또 잘못된 게 무엇인가?

아무리 다급해도 왕후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았어야 했다. 살려달라고 빌다보니 너무 가까이 가게 된 것이 왕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 버렸다.

8. 왕이 억지스런 말까지 하는 판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왜 하만의 얼굴을 감쌌을까?

죽을 죄인이란 뜻이다: 죽을 죄인은 빛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모양이다.

9. 하르보나는 하만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만이 갑작스럽게 준비한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마도 하만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겹싸게 에스더 편에 붙은 것, 다시 말하면 배신한 셈이다.

10. 하만은 크게 두 번(6장, 7장) 역전을 당한 셈이다. 무엇이 어떻게 역전되었는가?

자기가 썩귀케 되는 줄 알았다가 가장 미워하는 자의 종이 된 것(6장) 가장 미워하던 자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가만히 있었다라면 중간이라도 했을 것을 나대다가 오히려 꼭 반대로 당하고 말았다. 정상적으로는 하만이 이런 나무에 높이 달려 치욕스럽게 죽을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남을 해롭게 하려다가 자신이 그대로 당해버렸다.

에스더 8 장

1. 왕후의 인척(사촌 오빠)이라고 바로 총리에 앉힐 수 있나?
이미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총리인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왕이 높이는 분이라고 선전하고 다녔다. 그렇게 높여주면서도 아무 관직을 주지 않은 것은 하만의 착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을 뿐이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다.
2. 하만이 죽고 모르드개가 총리가 되었으면 일이 다 된 것 아닌가?
아직도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살아 있다. 취소도 안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에스더는 한 번 더 간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내미는 홀(4)은 목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미 왕에게 나아와 있으니!
3. 에스더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왕이 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증거는 무엇인가?
같은 내용의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는 것(5): 자신이 내린 조서를 취소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큰 손상이 가는 것이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으로 여긴 듯하다. 전제군주인 왕의 입장에서는 정답답하면 법이라도 무시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목숨이 자신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함부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4.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자신도 취소할 수 없단다. 다니엘 때에도 그러더니(단 6:15)! 메테 바사의 법이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안 그랬는데... 취소는 안 되니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내린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내려야 한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이번에는 왕의 준마를 이용해서 조서를 내려 보냈다(10, 14)
5.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내린 지 얼마만에 유대인을 위한 조치가 발표되었는가?
두 달 열흘 만이다(9 3:12)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총리가 바뀌고 업무를 인수하고 난 후에 서기관을 소집한 탓 아닐까? 조서를 쓰되 실수가 없도록 잘 써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6. 첫 번째 조서를 하달한 대상과 이번에 내려 보내는 조서의 대상에 차이가 있을까?
이번에는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대적을 치라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신과 방백과 관원들은 양쪽이 다 같은 날에 상대방을 멸절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느 쪽 편을 들까? 내용은 중립을 지키라는 셈이지만 하만은 죽었고 유대인인 모르드개는 살아있는 권력이니 답은 뻔하다.
7. 두 번째 조서의 내용(11-13)을 첫 번째 조서(3:13)와 비교해보자.
첫 조서에는 유대인을 죽이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없었으니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대적자를 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서로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양쪽에 다 주어진 셈이다.
8. 모르드개가 조복(궁중 예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산성이 왜 즐거울까?
하만이 나쁜 총리였던 모양이다. 까닭없이 한 민족을 학살하는 것을 수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9. 조서가 추가로 전해졌다고 끝이 아닌데? 대적자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을 뿐, 힘이 모자라면 당할 수도 있는데 벌써 잔치를 벌여도 되나?
조서의 내용은 양쪽에 공평하게 권리를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난 게임이라는 걸 다 아는 탓이다.
10. 그렇다고 본토 백성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인데?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세력을 가진 사람에게 붙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저런 이익을 볼 양으로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여하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민족이었더라는 것이다.

에스더 9 -10 장

1. 당시 유대인들에게 12월 13일은 어떤 날인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원래는 멸절당할 날이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러한데도 유대인들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다니(2)? 1212는 한국에서 신군부 세력의 항명사태가 일어난 날이다. 1213은 유대인들의 역전극이 벌어진 날이다.

2. 수비할 자는 없고(2) 공격을 도울 자만 있다(3). 그런데도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하만의 첫 조서를 보고 취한 태도가 대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모르드개가 등장해서 새로운 조서가 발표되기까지 두 달 동안 고통에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누가 대적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3. 히브리말은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때로는 문맥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2, 3, 4 절의 순서를 적당하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

4 3 2절의 순서로 하면 자연스럽다: 모르드개의 명성이 높아진다는 것(4)은 관원들이 두려워하게 되고(3)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힘이 강하여지기 때문이다(2). 원어상으로 4절이 3절의 원인이므로 이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교회도 머리수만 많아지면 힘이 넘친다. 표가 많으면 값을 사람이 없어진다?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과연 옷을 일인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참석수를 늘리면 표를 의식한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민원도 알아서 해결해 준단다.

4. 조서에 대적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8:11) 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10, 15, 16)?

대적들에 대한 공격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닌란 것을 증명하기 위함: 명백하게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터이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모르드개의 지시가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결국 모든 재산은 왕의 것이 된다. 언젠는 멸하라고 해도 멸하지 않고 끌고 오더니(삼상 15:17-23)? 결국은 지도자 문제다.

5.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고(5)?

앞에 나온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에 대한 반복이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형태이다.

6. 이번에는 왕이 에스더에게 스스로 또 부탁을 해주겠다고(12). '수산에서 이 정도 했으니 다른 곳에서는 어떠하겠느냐?'고 하면서 부탁할 게 있으면 또 하라는 것이다. 왕이 뭔가를 알고 말하는 듯한데?

수산에서 유대인들이 대적을 500이나 친 것이 완전하게 대적을 제거하지는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대적들의 입장에서든 하루만 피하면 되는 일이니 쉽게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7. 에스더도 이 날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루 만에 모든 대적을 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왕의 물음에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무엇인가?

대적을 칠 기회를 수산에서만 하루 연장하고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것은 심한 모욕이었단다. 다시는 유대인을 해할 꿈도 꾸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8. 결국 부림절은 몇 월 몇 일인가?

12월 14, 15일(21): 수산은 15일, 다른 지역은 14일, 그래서 이들이 되어버렸다!

9. 부림절은 누가 제정하였는가?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17-19)을 모르드개가 확정하고(20-22) 에스더가 뒷받침을 했다(29):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를 밟았다(31).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지도자가 확정해주는 식의 다스림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닐까!

10. 부림절이란 유대인들이 멸절당한 위협에서 견저냄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좋은 이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가령, 에스더 축일, 별(=에스더)축제, 광복) 하필이면 대적자들의 손에 죽을 뻔한 날을 정했던 제비뽑기의 부르에서 이름을 따 왔을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잠 16:33)을 믿는 탓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피마저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 '원수들아 마음대로 피를 부려보라'는 자신감마저 배어 있는 이름이다.

11. 무슨 뜻을 정하였을까(27)?

이 절기를 자손 대대로 반드시 지키기로: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란 아마도 개종한 유대인들일 것이다.

[10장]

12. 아하수에로 왕이 비록 그리스와 살라미 해전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을 많이 정복하

고 다스림으로 여전히 강력한 군주이었다(1). 그 사실이 유대인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경의 한쪽을 장식하는가?

그만큼 모르드개의 권력도 컸다는 말이다(2). 메대 바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다는 말이며 그것은 또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포로로 간 유대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초기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는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요 16:33).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한 후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얼마 후에 에스라를 팔레스티인으로 보낸 것이나(스 7:11-28) 느헤미야를 보낸 것도(느 2:5-8) 유대인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